

Stephen King의 공포소설에 나타난 여성성

송인갑*·고경원**

The Femininity in the Horror Novels of Stephen King

In-Gap, Song-Kyung-won, Ko

(Dept. of English Language Education)

ABSTRACT

Stephen King is well known as a popular horror writer. His works have been neglected and even ignored as mass entertainment by academic circles. However, he is reappraised as a feminist horror writer because his recent works deal with women's problem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femininity in his horror novels. Also this paper investigates what King's perspective of women is and how his feminism is embodied in his four novels, *Carrie* (1974), *Rose Madder* (1995), *Gerald's Game* (1992) and *Dolores Claiborne* (1992).

*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수

**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과 석사

King creates terrible female characters in his horror novels: Carrie of *Carrie*, Rosie of *Rose Madder*, Jessie of *Gerald's Game* and Dolores of *Dolores Claiborne*. In *Carrie*, his protagonist is repressed by her religious fanatic mother and is alienated from her friends. Therefore, she hurts and kills them by exercising her psychokinesis. In *Rose Madder*, King shows the Dionysian power of a woman warrior who fights against men's violence. In *Gerald's Game* and *Dolores Claiborne*, women fight against male sexual harassment in the patriarchal society.

In King's novels, the aliens who most frighten and horrify us are the women who live with and within us, yet remain isolated from a male-centered culture. Women that King's novels seem to show us are often “the perpetrators and victims of an American domestic horror”. These women hide their alien and terrifying face beneath a familiar mask. Thus King's women in his horror novels make males fear women who live in the patriarchal society.

The theory of King's domestic horror is based on Freud's “uncanny” strangeness and “otherness” of the Kristeva's horror world. The uncanny strangeness and otherness of the horror world represent the human aspects of a fanatic Dionysian world which is the opposite of the rational Apollonian. In the Dionysian world, everything is contradictory and all humans are Janus-faced.

King's women prove that all human beings, not only women but also men, can reveal fanatic Dionysian power. King's terrible female characters embody the idea that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n equal and harmonious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society which does not repress women's self.

I

장구한 역사와 전통에도 불구하고 공포소설은 항상 학계나 비평계 혹은 독자들에게

무시되고 천시되어 왔다. 우리시대의 공포소설은 문학이 아니라 정신병동에 존재한다는 벨린스키(Belinsky)의 지적처럼 (...can be a place only in an insane saylum and not in our literature)¹⁾ 독자들에게 보편적인 도덕성과 인간애를 탐색하고 전파하는 리얼리즘계의 작품과는 달리 공포소설은 어둡고 기괴한 감정을 유발시키고 광기와 불합리성 그리고 야만성과 초현실적인 황당무계함을 무기로 삼아 말초적인 감각과 동물적인 본능을 자극함으로써 인간성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킨다고 낙인찍힌 채 문학의 경전(cannon)에서 제외되고 “파괴적인 문학(He literature of subversion)”²⁾이라는 오명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공포문학은 지적 욕구나 도덕성을 충족시켜 주거나 건전한 상상력을 환기시켜 주는 작품과는 달리 기껏해야 부르쥬아 계급의 오락물이나 도피문학으로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장르의 구별이 없어지고 대중문학과 순수 문학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소위 “포스트모더니즘 (Post Modernism)” 시대에는 천시되었던 공포문학의 위상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 스티븐 킹(Stephen King)이 위치하고 재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25권 이상의 장편 소설과 수십 편의 단편소설을 출간하여 역대작가들보다 더 많은 작품을 썼다. 작품의 편수에 있어 역대 미국 소설가들 보다 많은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그가 순수 소설 작가가 아니라 이야기꾼(Story teller)으로 치부된다 하더라도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젊은 독자들(특히 대학생들)에게 컬트 소설가로 추앙을 받고 작품이 발표될 때마다 베스트 셀러가 되고 또한 그의 작품이 영화화될 정도로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미국 문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미국소설사나 비평계에서는 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고 외면당해 왔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하듯이 킹은 자기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로 미국의 문학계를 우회적으로 질타하고 있다.

괴상한 이야기는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건전한 방법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나에게 은유와 도덕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현 상황을 어떻게 인식해야하는

1) Jackson, Rosemary. *Fantasy : The Literature of Subversion* (Methuen, 1984) p. 172 참조.

2) Jackson, Rosemary. *Ibid.*, p.1

문제와 이런 인식을 기초로 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행동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창문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나는 재능과 지식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이런 문제를 탐구해 왔다. 나는 전미 도서상이나 풀리처 수상작가는 아니지만, 나는 진지하다.

The tale of the irrational is the sanest way I know of expressing the world in which I live. These tales have served me as instruments of both metaphor and morality; they continue to offer the best window I know on the question of how we perceive things and the continuously question of how we do or do not behave on the basis of our perceptions. I have explored these questions as well as I can within the limits of my talent and intelligence. I am no one's National Book Award or Pulitzer winner, but I'm serious, all right.³⁾

킹의 주요한 작품으로 꼽히는 “다크하프”(The Dark Half) 라는 소설 제목이 암시하듯이 인간 세계에는 빛의 세계 즉,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계 즉, 부조리하고 초자연적이며 비이성적인 면모가 공존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사회내의 인간을 그리기보다는(이 임무는 순수 소설을 쓰는 작가에게 남겨두고) 비정상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형상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자기 작품을 변론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공포 소설은 소설의 배경이 되고 있는 미국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형상화한 메타포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킹의 작품을 단순한 오락물로 평가 절하 할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잉태한 부산물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대중작가로만 취급되었던 킹의 소설을 읽고 그의 문학적 영향력과 가치를 가늠해 보는 것은 그의 문학 세계를 올바르게 조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3) King, Stephen. *Four Past Midnight* (Signet, 1990) p. 584.

킹의 소설이 현대 문학비평가와 사회과학자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는 번스와 카너(Gail E. Burns & Melinda Kanner)의 지적처럼 그는 더 이상 대중의 감각을 자극하는 저급한 대중작가로 치부되어선 안될 것이다. 그리고 상당수의 지적 독자들마저 그의 작품을 읽고 즐기고 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비판적이고 학구적인 독자들이 킹의 소설을 헐뜯고 무시하거나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단언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중성은 대중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문학 비평가 뿐 아니라 사회 과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Although critical and academic audiences ignore, denigrate, or otherwise declare King's fiction as unworthy of serious consideration, the vast popularity of this body of popular culture suggests an area for investigation by the social scientists as well as the literary critics.⁴⁾

킹의 여성인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의 소설 속에는 남성중심사회에서 타자인 여성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바라는 독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강렬한 힘이 있다고 추정한다. 또한 센프(Carol Senf)는 그의 작품이 가진 대중성이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드러내고, 여성인물들의 저항을 통해 여성문제를 인식시켜 줌으로써 독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독자들은 킹의 소설속에 욕구를 만족시키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의 소설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그의 소설속에 나오는 여성인물들을 연구하는 연구하는 학자들은 또한 여성에 대한 20세기 후반의 사회적 태도와 킹의 대중적 인기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발견하게 된다.”

4) Burns, Gail E., and Melinda Kanner. "Women, Danger, and Death : The Perversion of The Female Principle in Stephen King's Fiction." *Sexual Politics and Popular Culture* / ed. Diane Raymond,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Popular Press, 1990) p. 158-72.

Assuming that readers return to King's fiction because something in it satisfies their needs, scholars who examine King's women characters may also discover new insights into both his popularity and social attitudes to women at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⁵⁾

그의 공포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에 대하여 마지스트랄(Tony Magistale)은 『더 스탠드』(*The Stand*, 1978)의 여성인물 데이나(Dayna)와 『잇』(*It*, 1986)에 등장하는 여성주인공 베버리(Beverly)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강인한 여성으로 변모하여 남성과 가부장사회의 폭력에 대항하는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⁶⁾ 한편, 자코비치(Mark Jancovich)는 여성의 입장에서 그들의 숨겨진 내면심리를 보여주는 킹을 여권주의 공포작가라고 말하는데,⁷⁾ 이는 여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배려한 킹의 작가적 역량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킹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성주인공들은 남성중심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삶 곳곳에 스며있는 왜곡되고 억압된 여성의 참모습을 찾는다는 점에서 독자로 하여금 여성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게 한다

소설의 인물들이 경험하는 고통은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여성문제를 대변한다. 『캐리』(*Carrie*, 1974)의 종교적인 여성 억압, 『로즈 매더』(*Rose Madder*, 1995)에서의 가정폭력, 『제럴드 게임』(*Gerald's Game*, 1992)에 등장하는 가정의 이름 없는 주부, 『돌로레스 클레이본』(*Dolores Claiborne*, 1992)의 여성에게 편협한 가부장제도의 횡포 등이 그 예들이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캐리』를 제외한 세 소설에서 모두 나타나고, 아동학대는 『제럴드 게임』 『돌로레스 클레이본』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킹은 이러한 문제로 고통 당하는 여성들의 삶을 작품의 주제로 삼고 있다. 이들 킹의 소설에서 여성인물은 가정의 천사나 현모양처와 같은 전통적인 이미지에서 벗어

5) Senf, Carol. "Gerald's and Dolores Claiborne : Stephen King and the Evolution of an Authentic Female Narrative Voice" *Imagining the Worst : Stephen King and the Representation of Women*. ed. K. M. Lant, & T. Thompson. (Greenwood, 1998) p. 92.

6) Magistrale, Tony. *The Moral Voyages of Stephen King*. (Starmont, 1989)

7) Jancovich, Mark. *Horror*. (Everest, 1981) p. 101-2.

난 공포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은 그의 소설에서 중요한 관련성을 가지는 ‘공포와 여성’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킹의 공포소설에 차용된 ‘공포’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신분석학자들의 이론을 통해 공포에 대한 정의를 규명하려 한다. 공포를 인간의 심리학적 견지에서 고찰한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논문 「기괴함」(“The ‘Uncanny’”, 1915⁸⁾)과 정체성의 모호함으로 현대사회의 기본질서가 무너지는 혼란의 공포가 야기된다고 주장하는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저서 『공포의 힘』(*Powers of Horror*, 1982)⁹⁾을 통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인간의 내면 심리적인 공포를 살펴보고 킹의 공포소설의 주요한 모티브인 ‘금기’와 ‘디오니소스적 세계관’, ‘무질서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순차적으로 고찰하려 한다. 또한 킹의 여성관에 영향을 준 전기적 배경을 조망하고자 한다.

II

킹의 공포소설은 기존의 영미문학 작품 속의 고딕 소설, 공포소설들과 다른 점을 보인다. 그의 최근의 소설에는 메리 셸리(Mary Shelley)의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 1818)이나 브람 스토크(Bram Stoker)의 『드라큘라』(*Dracula*, 1897)처럼 초자연적이며, 공상적 괴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에드거 앨런 포(Edgar Allan Poe)의 「어셔가(家)의 몰락」(“The Fall of the House of Usher”, 1839)처럼 소설적 배경이 기괴하거나 음산한 분위기로 제시되지도 않는다. 그는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한 근원적인 ‘공포’를 그의 소설 속에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공포작가인 킹의 작품의 문학적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말하는 공포의 의미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과 정신의 영역에 속하는 공포를 설명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8) Sigmund Freud, "The 'Uncanny'," *An Infantile Neurosis and Other Works, the Standart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XVII, trans. James Strachey, (Hogarth, 1957)

9) Julia Kristeva. *Powers of Horror : an Essay on Abjection*. trans. L. S. Roudiez.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2)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기괴함」에 대한 이론과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공포의 힘』에 나타난 공포의 정의를 통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인간의 내면 심리적인 공포를 야기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프로이트는 보편적인 인간이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적인 일을 무의식의 영역에 가두어 놓는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인간은 소중한 육체의 한 부분이 절단되는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또한 인간은 대처하기 힘든 갑작스런 상황, 심리적 충격, 마음의 평화로움이 파괴되는 일들은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지 않도록 무의식의 영역에 가두어 놓는다. 인간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데, 무의식 속에 가두어 두었던 충격적인 상황이 갑자기 실제 현실에서 일어날 때 인간은 공포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에 대한 탐색에 이어 프로이트는 자신 안의 또 다른 자신을 재인식할 때 왜 그것이 낯설게 느껴지고 그로 인해 공포의 감정이 발생하는지를 「기괴함」이라는 용어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논문 「기괴함」(“The ‘Uncanny’”)에서 ‘uncanny’란 우선 ‘섬뜩한 것, 두려움과 공포를 유발시키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프로이트는 ‘두려움과 공포를 유발시키는 감정’을 독일어 단어인 ‘하임리흐’(Heimlich)와 그것의 반대어인 ‘운하임리흐’(Unheimlich)의 비교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프로이트는 서로 반대의 뜻을 지닌 두 단어가 사실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낯익은 것, 친숙한 것, 가정적인 것이라는 뜻의 ‘하임리흐’와 낯설고 생소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운하임리흐’는 서로 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같은 어원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운하임리흐’의 경우 무의식 속에 억압(repression)시켜 놓았기 때문에 일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공포는 인간이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는 것을 거부해서 무의식의 영역에 억압되어 있던 것이 의식의 영역으로 드러나는 순간에 발생한다. 무의식에 억압되었던 것이 다시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는 과정에서 인간은 익숙하지 못한 것을 대할 때와 같은 불안함을 느낀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불안한 감정을 ‘기괴함’으로 표현한다. 즉, 프로이트의 ‘기괴함’에서 비롯된 공포란 친숙한 존재 안에 있던 어떤 이질적인 요소가 드러났을 때 느끼게 되는 감정이고, 그 감정을 야기한 무서운 대상은 새롭거나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존재로 다만 억압에 의해 숨겨져 있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어떤 종류이건 감정적인 충동에 속하는 모든 정서는 억압되었을 때 불안으로 변화한다고 보는 정신분석 이론이 옳은 것이라면, 무서운 것들 중에는 억압되었다가 회귀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부류가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류의 무서운 것들이 기괴함을 이룰 것이다. . . 왜냐하면 이 기괴함은 사실 새롭거나 낯선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서, 다만 억압과정에서 멀어진 것이다.

In the first place, if psycho-analytic theory is correct in maintaining that every affect belonging to an emotional impulse, whatever its kind, is transformed, if it is repressed, into anxiety, then among instances of frightening things there must be one class in which the frightening element can be shown to be something repressed which recurs. This class of frightening things would then constitute the uncanny . . . for this uncanny is in reality nothing new or alien, but something which is familiar old-established in the mind and which has become alienated from it only through the process of repression.¹⁰⁾

즉, 프로이트가 말하는 ‘기괴함’에서 발생하는 공포란 새롭고, 신비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친밀한 대상의 숨겨졌던 면이 드러날 때, 낯설음의 기괴함으로 느껴지는 감정이다. 즉, 공포는 이미 알고 있는 대상의 어떤 면이 ‘억압’으로 인해 무의식의 영역에 잠재되어 있다가 의식의 영역으로 떠오를 때 생긴다는 것이다. 공포를 느끼는 인간의 내면에는 이미 그 공포를 야기하는 요소가 존재한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안에 존재하던 그 공포의 요소를 재인식하게 될 때 공포와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자신 안의 억압된 공포의 요소가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의 표면에 드러났을 때에 느끼는 기괴함의 공포를 말한 프로이트의 이론을 근거로 크리스테바는 정체성의 모호함으

10) Sigmund Freud, op. cit., p. 241

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혼란의 두려움을 공포의 개념으로 정립시키고 있다. 그녀는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는 상황을 ‘아브젝시옹’(Abjection)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대의 가부장제사회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그 질서를 유지한다. 주체와 객체, 자아와 타자, 남성과 여성 등의 이분법을 통해 뚜렷한 정체성의 경계선을 그음으로써 사회의 질서와 권위는 세워진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의 경계선이 모호해질 때, 사회는 무질서해지고 권위가 무너지는 부정부적인 상태가 된다. 크리스테바는 이런 상태를 ‘아브젝시옹’이라고 정의하고 ‘아브젝시옹’의 상태가 바로 사회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다. ‘아브젝시옹’은 역겨움, 비굴, 비천, 영락, 절망, 천함, 버려짐, 내팽개쳐짐, 비열 등의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브젝시옹’은 경계상에 있는 것으로서 “애매모호”하고 “어중간”하며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결정적인 것이다. 또한 미결정인 것이기 때문에 경계선이 무너진다.

크리스테바는, ‘아브젝시옹’에는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격렬하게 저항하는 힘이 존재한다고 말한다.¹¹⁾ 내 안에 있지만 결코 내가 아님을 일깨워주는 ‘아브젝시옹’안에는 끌어당기는 인력과 떨쳐 내버리려는 반발력이 동시에 존재한다. ‘아브젝시옹’은 우리 삶이 다할 때까지 쉬지 않고 뱉어내고 밀어내면서 분리되는 동시에 유혹하듯 되돌아와 동화된다. ‘아브젝시옹’은 딱 부러지게 자아나 타자 어느 한 쪽에 속하지 않으면서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정체성의 존립을 위협한다.

그녀는 ‘아브젝시옹’의 예로 구토물과 인간의 몸 사이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다. 우리가 내뱉는 구토물(嘔吐物)은 역겨운 것들이다. 그러나 그 구토물은 예전에 내 안에 존재하던 나의 일부였다. 하지만, 몸밖으로 내버려진 그 오염물은 몸 속에서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양분을 주었던 음식, 즉 내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타자의 역할을 해 주었던 음식이었다. 오염물은 이제 더 이상 나와 하나가 될 수 없다. 그것은 결코 내가 오염물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나 나는 음식에 이끌려 삼키듯 몸 속에 양분을 채워 넣는다. 음식은 몸밖으로 나오는 오염물이 되기 전까지는 내 안에서 나와 동일체를 이루지만 나의 육체는 음식과 하나가 아니다. 나는 오염물을 뱉어내고 밀어내면서 그것과 분리되는 동시에 또, 그 음식을 삼킨다. 그리고 내 몸 속에 다시 되돌아와 있는

11) Julia Kristeva. Ibid., p. 1.

음식으로 인해 내가 아니면서도 나인,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모호함을 느낀다. ‘아브젝시옹’ 안에서 나는 더 이상 나도 아니며, 음식도 아닌 알 수 없는 존재가 된다.

크리스테바는 정체성의 구분을 위협하는 ‘아브젝시옹’의 두려움으로 구토물과 인간의 몸의 관계로부터 모성의 육체와 연관된 여성문제의 ‘아브젝시옹’으로 옮겨간다. 모성은 임신의 과정으로 주체와 객체로 명확하게 나누어지지 않는다. 어머니의 정체성은 자아 속에 타인인 아이를 담고 있는 모성의 육체, 즉 임신의 과정을 통해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억압되어야 하는 존재로 여겨지게 된다. 겉으로 드러날 수 없는 진실한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야 할 때,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된다. 즉, 여성의 본 모습은 부정되고 만다. 따라서 공포의 대상이 되는 여성은 지금까지 실제 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남성중심사회의 질서와 기존사회의 권위에 의해 다른 모습으로 비쳐져왔다.

프로이트는 공포란 친숙하기 때문에 비밀 속에, 그림자 속에 존재해야 하는 것들이 드러났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말했고, 크리스테바는 정체성 자체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위협에서 오는 공포를 말했다. 이제 이들 정신분석학자의 이론을 토대로 킹의 공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포를 정의하면서 킹은 ‘디오니소스적’(Dionysian)이라는 용어를 차용하는데 이 용어는 니이체가 『비극의 탄생』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술과 시의 신이라 불리는 그리스의 신 디오니소스는 역동(力動)·열정·광포·파괴를 지향하며, 도취적·격정적인 성격을 지녔다. 또한 엄격·질서·조화의 아폴론적 세계관에 토대를 둔 그리스 남성지향 사회에서 여성 주도적인 세계관을 구축한 신이기도 하다.

킹은 공포에 대한 이론서라고 볼 수 있는 『당스 마카브르』(*Danse Macabre*, 1981)에서 아폴론적 이성과 합리성에서 벗어난 터부와 디오니소스적 힘으로부터 야기되는 무질서와 변화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을 피력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아폴론적 세계관인 질서와 이성에서 익숙함과 편안함을 느낀다. 또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살인이나 강력 사건과 같은 범죄를 엄히 처벌하여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살인이나 범죄 등은 겉으로 드러나는 아폴론적 힘과는 반대되는 숨겨진 디오니소스적 힘에 속해 있다. 이 숨겨진 디오니소스적인 면은 무의식의 영역에 존재하며, 인간이 예상치 못하는 사이의 어느 때나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비합리적 본능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인간의 숨겨진 본능인 디오니소스적 악마성이 폭발하게 될 때는 살아있는 인간의 사지

를 절단 하거나 생매장하는 등의 사회적 금기로 취급되는 터부가 행해지며, 아폴론적인 세계관은 무용지물이 되어 더 이상 사회의 규범으로 그 구속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디오니소스적 힘의 침입은 아폴론적 힘으로 유지되어 오던 사회의 질서가 더 이상 효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사회는 디오니소스적 세계관의 침입으로 인해 낯설고 두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는 이러한 낯선 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극대화되어 무질서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공포소설을 규범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생성되는 이야기로 정의하여 왔다. 또한 우리는 공포소설을 두려움과 전율을 느끼며 들어가는 금기구역으로, 그리고 예고도 없이 편안한 아폴론적인 현상을 침입하는 디오니소스적인 요소로 간주하였다. 아마도 모든 공포의 이야기는 사실은 무질서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We have discussed the horror story as a tale which derives its effect from our terror of things which depart the norm; we have looked at it as a taboo land which we enter with fear and trembling, and also as a Dionysian force which may invade our comfy Apollonian status quo without warning. Maybe all horror stories are really about disorder and the fear of change.¹²⁾

킹은 그의 소설에서 아폴론적 사회 규범에서 벗어나는 금기와 본능의 광기로부터 나오는 공포를 형상화 하고 있다. 나아가 그의 공포는 예기치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 야기된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을 유발시킴으로서 독자들에게 현상적인 자아와 본질적으로 다른 타자가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킹은 스티븐슨(Stevenson, Robert Louis Balfour)의 단편소설 『지킬박사와 하이드씨』(The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1886)의 양면적 인간상을 예를 들어 익숙한 자신과

12) King, Stephen. op. cit., p. 305.

낮선 자신의 개념을 설명한다. 우리가 『지킬박사와 하이드씨』에서 가장 놀라는 부분은 괴물 하이드(Mr. Hyde)와 존경을 받는 지성인인 지킬(Dr. Jekyll)이 동일인물이라는 사실이다. 킹은 이들 두 인물이 전혀 다른 면을 지닌 하나의 인물이라는 것을 통해 인간이 이중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공포소설의 목적은 단순히 터부의 영역을 탐구하는 것뿐 만 아니라 우리에게 대안의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현 상태를 좋게 보자는 것이다. 훌륭한 공포물은 무서운 악몽처럼 현상을 뒤집음으로써 역할을 다한다. 우리를 가장 겁나게 하는 부분은 하이드가 처음부터 지킬박사와 하나였다는 사실이다. 공포문학이 점점 자기중심주의 예찬에 빠져들고 있는 미국사회에서 우리 자신의 원치 않는 부분을 보여준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The purpose of horror fiction is not only to explore taboo lands but to confirm our own good feelings about the status quo by showing us extravagant visions of what the alternative might be. Like the scariest bad dreams, the good creepshow often does its work by turning the status quo inside out - what scares us the most about Mr. Hyde, is the fact that he was a part of Dr. Jekyll all along. And in an American society that has become more and more entranced by the cult of me-ism, it should not be surprising that the horror genre has turned more and more to trying to show us a reflection we won't like - our own.¹³⁾

킹의 공포소설이 기존의 고딕소설과 구별되는 독특한 점은 독자들 스스로 자신 안에 공포의 대상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는 점이다. 그는 무서운 대상을 통해 바깥으로 드러나는 공포를 보여준 근대 고딕소설과는 달리 인간의 무의식에 숨어있

13) King, Stephen. op. cit., p. 282.

는 디오니소스적인 본능의 존재를 일깨움으로써 인간 내면의 공포를 발견하게 한다. 그는 인간 자신이 바로 양면성을 지닌 공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 광기라는 디오니소스적인 성향이 우리의 정상적인 삶에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킹은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인간 자신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아폴론적 세계관의 특성인 합리성과 이성에 의해 움직이는 현대 사회는 비이성적이고 파괴적인 디오니소스적 세계관의 침입으로 위협받는다. 인간은 아폴론의 지배적인 억압을 받아왔던 광기의 디오니소스적 본능의 급작스런 출현에 대처할 수 없는 당혹스러움으로 인해 위기를 느끼게 된다. 또한 자신을 위협하는 힘은 자신 안의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나 자신을 닮았지만 자신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디오니소스적인 성향을 지닌 또 다른 나 자신이 바로 우리를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이라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결국, 우리를 아주 섬뜩하게 하는 유령은 우리 자신의 얼굴이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살펴볼 때, 물에 비쳐 투영된 자신의 아름다움에 빠져 생명을 잃어버린 나르시서스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 .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은 하찮은 아폴로의 규제의 손길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속박이 필요치 않다. 우리 내면의 낮은 이는 소리를 발하며 가장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활보한다. 바로 이것이 디오니소스적인 부분이며 . . . 여전히 우리의 한 부분으로 우리 안에 실재한다.

What is the ghost, after all, that it should frighten us so, but our own face? When we observe it we become like Narcissus, who was so struck by the beauty of his own reflection that he lost his life, . . . it is the deep part of us that need not be bound by piffling Apollonian restrictions. It can walk though walls, disappear, speak in the voices of strangers. It is the Dionysian part of us . . . but it is still us.¹⁴⁾

14) King, Stephen. *Danse Macabre*, (Everest, 1981) p. 258.

공포의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킹의 주장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도록 만든다. 공포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은 크리스테바가 말한 정체성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것으로부터 야기되는 공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내 안에 내가 아닌 타인이 들어있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은 자기중심주의가 만연한 현대 미국사회에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의 태도를 요구하도록 한다. 킹의 공포는 인간이 억압하고 거부했던 숨겨진 부분이 바로 인간 자신의 또 다른 어두운 부분이며 은폐된 반쪽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론은 남성중심사회의 은폐된 존재인 여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가능성을 열어준다. 남성중심사회에서 은폐된 존재로 살아오던 여성의 모습은 킹의 공포소설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킹이 전통적인 현모양처 여성상 대신 기괴하고 무서운 인물을 여성의 이미지로 부각시킨 원인을 먼저 킹의 전기적 배경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가진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세 단계에 걸친 변화를 보여준다. 첫 번째 시기는 그의 어린 시절이고 두 번째 시기는 청년기 대학시절이다. 그리고 마지막 시기는 결혼 후 현재까지이다. 그는 유년 시절 아버지가 부재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힘들게 일하며 자신을 양육했던 어머니를 통해 강인한 모성을 가진 주체적인 여성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가 청년기였던 1960년대와 70년대 미국에서는 여성의 권익을 주장하는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킹은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동등해진다는 사실에 남성으로서 위협을 느꼈던 것 같다. 세 번째 시기에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여성은 작가이며 부인인 태비사 킹(Tabitha King)이다. 그는 결혼 후 동료 작가인 아내를 통해 글쓰기 영역에서 자신과 같은 역할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때로는 충고로 자신을 이끌어 주기도 하는 태비사를 통해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여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전기적 배경이 킹으로 하여금 여성은 더 이상 가정의 천사와 같은 아내가 아니며, 자신의 지위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강인하고 주체성을 지닌 인간임을 인식하도록 했던 것이다.

하지만 킹 역시 현대사회의 여성운동으로 인해 위기감을 느끼는 남성중심사회의 일개 남성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부장제 사회의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던 여성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남성에게 동등한 권익을 주장하는 것

은 남성에게는 위협적인 상황인 것이다. 그가 소설을 집필했을 당시의 미국은 20세기전반 여성운동과 인종주의, 반전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 사회 질서체제가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성차별에 반대하고 남성과의 동등권을 주장하는 여성 운동은 기득권 층과 남성 중심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혼란한 사회의 불안과 공포는 킹의 공포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에게 잘 반영되어 있다. 여성운동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남성 집단의 무의식과 남성을 우위로 여기는 전통 미국 가정의 정서로부터 생성된 두려움은 공포의 여성인물을 통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킹은 첫 장편소설 『캐리』가 여성의 권리를 주장한 “여성운동”(Women's Liberation)과 여성성에 대한 남성들의 공포를 반영한 소설이라고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캐리』는 여성이 그들 힘의 경로를 어떻게 발견하는지와 남성이 갖는 여성과 여성성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작품이다. . . 나는 대학 졸업 후 3년이 지난 1973년에 이 소설을 집필하면서 여성운동이 나와 우리 남성들에게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깨닫고 있었다. 성인들에게 성숙한 의미에 있어서 이 소설은 여성의 권리가 남성과 동등해질 미래를 겁내는 남성들의 두려움을 보여준다.

Carrie is largely about how women find their own channels of power, and what men fear about women and women's sexuality . . . which is only to say that, writing the book in 1973 and only out of college three years, I was fully aware of what Women's Liberation implied for me and others of my sex. The book is, in its more adult implications, an uneasy masculine shrinking from a future of female equality.¹⁵⁾

그러나 킹은 여성을 억압되어야만 하는 존재로 여기는 가부장제적 사고를 지닌 권위

15) King, Stephen. Ibid., p. 171.

주의자는 결코 아니다. 그는 오히려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는 작가로 보여진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글을 써왔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킹은 소외되고 버림받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소외된 자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었다. 소설 『캐리』의 여성이 작가 자신의 어린 시절 분신이라고 말한 빔(George Beahm)의 지적처럼, 그는 주인공 캐리를 통해 남성중심사회에서 소외된 여성의 고통을 표현하고자 노력했다.

킹 역시 “똥똥”하고 “다른 아이들로부터 외면 당했으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 특히 “십대 때 폭력적” 성향이 강한 아이였던 그 자신의 삶을 캐리에게 투영했을 뿐 만 아니라”

Not only has he given Carrie aspects of his own life as a child - King too was “fat”, “estranged from other kids my age”, “deserted” by his “father”, and prone to “violent” feelings “particularly in my teens”¹⁶⁾

이처럼 킹은 자신이 어린 시절에 소외되고 외면당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소설 속에서 그들의 심리를 사실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만약 그가 가부장적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을 생각했다면 사회와 남성으로부터 여성이 당하는 부당한 처사와 폭력을 적나라하게 표현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로즈 매더』에서 가정폭력을 자행하는 남편과 『제럴드 게임』에서 여성을 오직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남편 등은 여성이 가정에서 얼마나 억압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보여준 것이다.

란트와 탐슨(Lant, Kathleen Margaret. & Thompson, Theresa)은 『로즈 매더』를 통해 가정에서 여성이 가진 힘과 우월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가부장제 사

16) Beahm, George. *The Stephen King Companion*. (Andrews and Mee, 1989) p. 27.

회에서 억압되어 있던 여성이 자기 안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여성을 위협하는 남성의 폭력에 도전하는 여성의 힘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 . . 그의 소설에는 희생에 반항하는 가정적인 권능과 지배력을 주장하는 여성의 능력을 그리고 있다. 킹의 최근 소설 『로즈 매더』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여성주인공들은 그들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남성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질적이고 무서운 영역 또한 성공적으로 꺾어 내준다. 킹은 『로즈 매더』에서 여성의 마음속에 남성의 지배에 순응하면서도 동시에 똑같은 강렬한 힘으로 남성의 폭력에 응수하는 점이 나타나 있는 것 같다.

. . . His fiction often demonstrates a woman's abilities to assert domestic power and dominance that defy victimization - in part because, as we see in King's recent novel *Rose Madder*, his female protagonists successfully defeat not only the brutal men threatening them but also the foreign and terrifying territories within their own psyches. Within the female mind, King seems to imply in *Rose Madder*, resides something that both acquiesces to masculine dominance and violence and responds to that violence with an equally compelling power.¹⁷⁾

한편 그의 많은 작품에서 여자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는 점은 그가 남성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 킹은 그의 저서 『온 라이팅』(*On Writing*, 2000)에서 “가정에서도 조연역할을 하는 주위의 여성들의 특성을 잘 부각시킬 수 없다”고 토로하면서, 남성작가로서 여성의 문제와 내면심리

17) Lant, Kathleen Margaret. & Thompson, Theresa. “Imagining the Worst : Stephen King and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magining the Worst : Stephen King and the Representation of Women*. Westport, (Conn.: Greenwood, 1998) p. 5.

를 다루는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다.¹⁸⁾ 가정에서 객체의 역할을 하는 여성의 위치는 그의 소설 『제럴드 게임』에서도 나타난다.¹⁹⁾ 남성으로서 여성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은 초자연적인 영역으로부터 보다 현실적인 영역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많은 남성 작가들이 다루기를 두려워했던 여성의 내면심리를 여성인물들을 통해 올바르게 그려내고자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거듭해왔다.

그의 소설에서 여성은 처음부터 공포를 느끼게 하는 두려움의 대상은 분명히 아니었다. 그러나 후기 소설로 갈수록 거의 모든 여성의 모습은 현모양처인 어머니, 남편의 말에 고분고분한 아내의 이미지가 아니다. 킹은 여성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작가로서 여성의 심리를 심분 이해하고 더 이상 전통적 여성의 모습은 그리지 않았다. 킹이 여성의 심리를 이해했다는 것은 상처와 고통을 가진 가부장제 사회의 소외된 여성을 적극적으로 남성사회에 도전하는 주체적인 모습을 가진 변화된 존재로 만들었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돌로레스 클레이본』의 여성은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여성인물의 구체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킹은 『돌로레스 클레이본』을 통해 가부장제사회의 병폐를 고발하고 있다. 셸프는 『돌로레스 클레이본』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인간이 겪고 있는 보편적 문제들, 이를테면 아동학대, 불행한 결혼, 그리고 여성에게 편파적인 가부장적 ‘제도’들의 횡포 등과 같은 것들이라고 말한다.

.. 그의 소설은 보통의 문제를 지닌 보통의 여성을 그리고 있다. 즉, 아동 학대와 화목하지 못한 결혼, 여성보다 남성에 호의적인 제도와 같은 문제들이다.

.. they depict ordinary human women with ordinary human problem, including child abuse, bad marriages, and institutions that favor men over women.²⁰⁾

18) King, Stephen. *On Writing: A Memoir of the Craft*. (Scribner. 2000) p. 76.

19) Stephen King, *Gerald's Game*, (Viking Penguin, 1995) pp. 4-5.

20) Senf, Carol. op. cit., p. 96.

크리스테바는 『우리들 자신의 이방인』(*Strangers to Ourselves*, 1991)에서 가부장제의 주체인 남성과 타자적인 존재의 여성이 어떻게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한다.²¹⁾ 상이한 차이점을 지닌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남성은 현모양처의 전형적인 여성상이 아닌 다른 모습을 여성에게서 발견하게 될 때 이방인을 대면하는 듯한 낯설음을 느끼지만 동일한 여성의 또 다른 모습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은 프로이트가 ‘기괴함’에서 말한 낯설음의 공포를 느끼는 주체와 공포를 주는 대상이 같은 원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남성중심사회의 이방인인 여성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 자신 내부에 있는 양면적인 또 다른 자신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²²⁾는 크리스테바의 말처럼 킹은 인간 자신이 이해하기 힘든 숨겨진 다른 면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적합한 방법을 공포의 여성 이미지를 통해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소설의 주제가 소외된 인간을 동등하게 대하는 태도의 촉구와 인간 자신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그가 단순히 대중의 오락성을 노리는 작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킹이 그리는 공포의 여성인물들은 서구 사회에서 숨겨지고 표현되지 않았던 모성과 금기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은 남성들에게 이방인과 같은 존재로 억압되어 사회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영역에 속해 있다. 프로이트가 말한 ‘기괴한 것’의 공포의 대상은 억압되어서 인식되지 않았었을 뿐 공포를 느끼는 인간과 동일체적 요소에 속한 것이었다. 또한 크리스테바는 주체와 객체를 분명하게 분리시키는 경계선의 모호함으로 인해 뚜렷한 정체성을 가질 수 없는 인간 사회 구성원들에 대해 말했다. 이들 정신분석학자의 이론과 킹이 말한 인간의 디오니소스적 본능의 발견은 자기 자신 안에 바로 타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신 안에 타자가 존재한다는 깨달음은 남성 주체의 사회에서 타자로 소외되었던 여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대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것이 가능한 것임

21) Julia Kristeva, *Strangers to Ourselves*. trans. L. S. Roudiez,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1) pp. 191-2.

22) Julia Kristeva. op. cit., pp. 191-2.

을 깨닫게 한다.

III

이제까지 킹은 대중 취향적 컬트 소설가로 학계에서 무시되고, 그의 작품은 경시되었다. 그러나 그는 여성의 문제를 제기한 여러 편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여권주의 공포작가라는 또 다른 칭호를 얻게 되었다. 비평가들은 20세기 후반 미국 사회의 여성에 대한 억압적인 태도를 그의 소설에 등장한 여성주인공의 삶의 상황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고 말한다. 킹의 공포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의 모습은 남성중심 사회에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킨다. 이러한 공포에 대해 프로이트는 일상적이고 친숙한 것들이 억압되어 있다가 그 억압을 뚫고 다시 드러났을 때 생기는 낯설고 기괴한 감정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테바는 정체성의 명확한 경계가 흐려지면서 야기되는 질서와 권위의 혼란이 이러한 공포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신분석학적인 설명을 통해서 봤을 때, 킹이 말하는 공포는 아폴론적 힘으로 지배되는 현대 사회를 광기의 디오니소스적인 힘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간자신이 디오니소스적인 면을 지닌 공포의 대상된다는 깨달음이 바로 공포를 증폭시키게 된다.

그러나 그의 공포소설은 단지 두려움과 공포의 부정적인 가치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그의 공포소설에 등장하는 주요인물은 죽음과 추함과 같은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는 죽음의 이면에 존재하는 삶과 생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킹은 불쾌함과 기괴함을 경험함으로써 얻게되는 삶의 긍정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그들은 죽음을 사랑하지 않고 삶을 사랑한다. 그들은 기형적인 것을 찬미하지 않으며 그 기형을 성찰함으로써 건강함과 정렬적인 삶을 찬양한다.”

They do not love death, as some have suggested; they love life. They do not celebrate deformity but by dwelling on deformity, they sing of health and energy.²³⁾

공포를 통해 삶의 긍정적인 가치를 말하는 그의 소설이 대중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인간들의 불안과 소설보다 더 기괴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 상황을 탐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킹의 소설이 가진 의의는 논리와 이성이 지배하는 서구 사회에 악마적이고 디오니소스적인 요소가 공존하고 있음을 대중들에게 설파하는데 있다. 킹의 공포는 내 안에 숨겨진 예상치 못한 디오니소스적인 또 다른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간 개개인의 차이점을 수용하는 태도를 자기중심주의에 빠져 있는 미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킹의 공포소설은 남성 중심사회에서 타자로서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왜곡된 여성의 모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각성시키고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Beahm, George. *The Stephen King Companion*. (Andrews and Mee, 1989)

Burns, Gail E., and Melinda Kanner. "Women, Danger, and Death : The Perversion of The Female Principle in Stephen King's Fiction." *Sexual Politics and Popular Culture* / ed. Diane Raymond,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Popular Press, 1990)

Freud, Sigmund "The 'Uncanny'," *An Infantile Neurosis and Other Works, the Standart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XVII, trans. James Strachey, (Hogarth, 1957)

Jackson, Rosemary. *Fantasy : The Literature of Subversion* (Methuen, 1984)

Jancovich, Mark. *Horror*. (Everest, 1981)

23) King, Stephen. op. cit., p. 194.

Julia, Kristeva. *Powers of Horror : an Essay on Abjection*. trans. L. S. Roudiez.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2)

_____, *Strangers to Ourselves*. trans. L. S. Roudiez,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1)

King, Stephen. *Danse Macabre*, (Everest, 1981)

_____. *Four Past Midnight* (Signet. 1990)

_____, *Gerald's Game*, (Viking Penguin, 1995)

_____. *On Writing: A Memoir of the Craft*. (Scribner. 2000)

Lant, Kathleen Margaret. & Thompson, Theresa. "Imagining the Worst : Stephen
King and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magining the Worst : Stephen
King and the Representation of Women*. Westport, (Conn.: Greenwood,
1998)

Magistrale, Tony. *The Moral Voyages of Stephen King*. (Starmont, 1989)

Senf, Carol. "Gerald's and Dolores Claiborne : Stephen King and the Evolution of
an Authentic Female Narrative Voice" *Imagining the Worst : Stephen King
and the Representation of Women*. ed. K. M. Lant, & T. Thompson.
(Greenwood, 1998)